



홀아버지 '바짓바람', 이젠 '한국의 슈바이처' 키웁니다



김종호 기자

오는 3월 1일 개교 10주년을 맞는 거창국제학교의 함승훈 이사장(사진 가운데 안경 쓴 사람)과 재학생들. 함 이사장은 "의사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직업이자 세계 곳곳에 수요가 많은 직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의사 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환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골라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훌륭한 의사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부인과 사별한 그는 혼자 아들 둘을 키워 한국과 독일 의사로 만들었다.



김종호 기자
와일드 터치

개교 10주년 맞는 '예비 의사 양성' 거창국제학교 함승훈 이사장

고교 학력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 경남 거창에는 독특한 대안학교가 있다. 글로벌 의학 영재 교육을 표방하는 거창국제학교다. 이 학교 함승훈(60) 이사장은 서른넷에 아내와 사별하고 27년을 홀아버리로 살아왔다. 그가 혼자 키운 두 아들은 한국과 독일에서 의사가 됐다. 그런 자식 농사 경험과 오랜 유학·교수 생활을 바탕으로 10년 전 만든 거창국제학교였다. 이 학교 입학생은 전원 헝가리 국립 테브레젠 의과대학에 진학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받는다. 약 10% 가량이 성적 미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길을 갈 뻔, 나머지는 전부 헝가리 의대에 진학한다.

헝가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3명 배출하고, 국경 마을 쇼프란은 '임플란트의 도시'로 유럽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1조원을 버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보이는 거창국제학교 교정에서 함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거창국제학교에서 길러낸 나의 또 다른 자식들이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글로벌 NGO를 만들어 세계 구석구석에 귀한 의술을 펼치는 국제 의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얘기를 하는 대목에선 눈가가 촉촉해졌다. - 유학, 교수, 학교 이사장... 교육자 인연이 많군요.

"아버지 고향이 이북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함경남도 흥원군에 보통학교를 세웠고 할아버지도 이사장을 했어요. 교육자 집안인 셈입니다. 가족들이 1·4 후퇴 때 흥남에서 배 타고 피난 왔습니다." - 어려서 유학을 갔던데.

"한국에서 독일인학교를 다니다 고교 과정부터 독일에서 했어요. 도르트문트 공대 도시공학과를 다녔습니다. 석사·박사학위 모두 그곳에서 따졌어요."

- 사별한 부인은 독일에서 만났습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유학 준비 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후 아내는 데트몰트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가난한 유학생이 뭐 볼 것 있느냐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실향민 출신의 교육자 집안 박사

"의학은 머리 아닌 영당으로 하는 것 국내 醫大 갈 점수 좀 모자라도 열정있어야 훌륭한 의사될 수 있어 입학생 90% 헝가리 국립의대 진학 글로벌 NGO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세계 곳곳에서 귀한 의술 펼쳤으면"

대해서 연애만 7년 했습니다." - 부인을 무척 사랑하셨던 모양입니다.
"한눈팔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유일한 친구이자 연인이었지요. 일 주일에 한 번 만나 한국말로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1983년 결혼한 함 이사장 부부는 만이들 창화(31)와 둘째 창수(29)를 낳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결혼 6년 만에 부인은 위암 말기 선고를 받는다. - 충격이 컸겠습니까.
"1989년 겨울이니까, 제 박사 학위 1년

정도 남았을 무렵입니다. 학업을 마친 아내가 아이들과 먼저 귀국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귀국 전날 배가 몹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독일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 같다고 했는데, 한국 가서 정밀진단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서른두 살 젊었던 만큼 암 진행 속도도 빠르더군요. 이듬해(1990년) 2월 28일 숨을 거뒀습니다. 제 생일이었지요."

재혼 포기, 아들 둘 직접 키워

- 두 아들이 다섯 살, 세 살 때군요.
"아내가 죽자 저는 어른들과 엄청 다투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화장(火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땅에 묻으면 더 아내를 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어른들은 재혼을 염두에 뒀던 것입니다. 남자 혼자 어떻게 아이 둘 키우겠느냐는 것이지요." - 그래서요?
"아내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 제겐 너무 가혹한 요구였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라는 권유엔 화가 나더군요.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자고 재혼하면 그 여자는 보모나 가정부밖에 더 됩니까. 재혼할 여자에게도 미안할 일이고 죽은 아내에게도 면목없는 것이지요. 화장도 안 되고 재혼도 안 된다고 버텼더니 부모님이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시 제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벽제공원묘지였습니다. 우연히도 아내와 처음 만난 곳도 벽제공원묘지 인근 외국인 학교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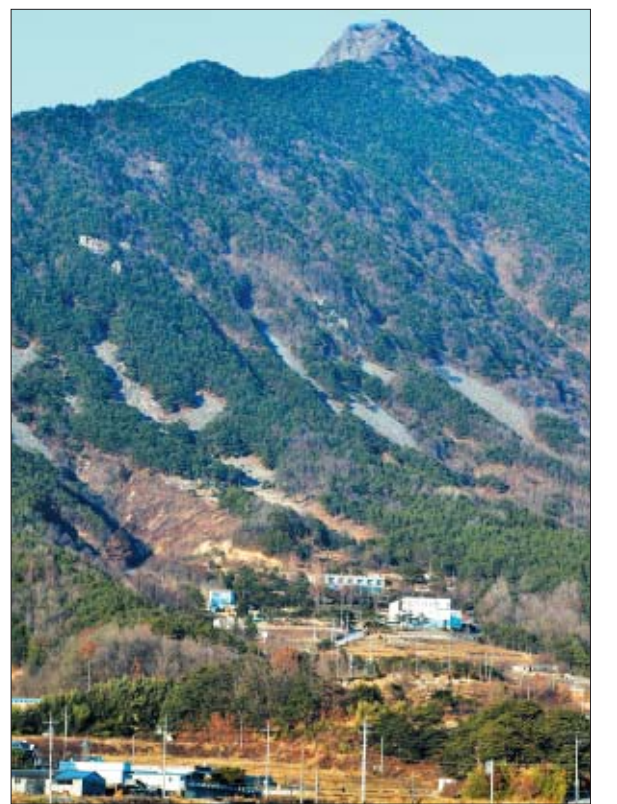
-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학위가 급했던 제가 먼저 독일로 왔습니

다. 그런데 아이들을 계속 부모님에게 맡겨둘 수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양육 방식에 원칙도 없고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응석받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힘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 독일로 데려왔나요?
"어른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지요. 하지만 제 뜻이 워낙 확고해 독일로 애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싫었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혼자 키우게 됐으니 아이들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이들만 비행기 태워 보내라고 했어요."

- 독한 아버지였군요.
"‘보호자 없는 어린이’ 카드를 목에 건 다섯 살 창화가 세 살 창수 손을 잡고 김포 공항 출국장 안으로 방금 들어갔다는 동생 전화를 새벽에 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던지, 무모한 것 아닌지 별별 생각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승객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했지요. 잠시 후 공항 탁아소에 아이가 있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

- 두 아들과의 독일 유학은 어땠습니까.
"사정이 딱해 보였던지 지도교수가 작은 연구실을 내줬어요. 작은 원룸에서 아침밥 해 먹고 아이들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왔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교수님들이 집에 있던 장난감을 잔뜩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공부 아이들 일찍 재우고 새벽에 했지요."



김종호 기자

거창국제학교는 거창군 가조면 가야산 줄기인 비계산(해발 1130m) 자락에 있다. 교정 맞은 편 멀리에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인다

INSIDE

- B3** 군사용에서 유통·레저용으로 드론, 장난이 아니네
- B6** 수익 80% 위안부피해자에 기부 "우리 제품엔 피해 할머니들 사연이..."
- B7** 카드·택시·승용차도 프리미엄 상징된 '블랙'